

全北學研究 (Ⅲ)

국립전주박물관



0003260

1997

全 羅 北 道

全北學研究 Ⅲ

1997년 9월 5일 인쇄

1997년 9월 19일 발행

발행처 : 전라북도

연구 용역 기관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속
전라문화연구소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화·팩스 (0652) 70-3273

편집·인쇄 : 도서출판 혜안

(02) 3141-3711

12) 순창군	· 280
13) 부안군	· 280
14) 고창군	· 281
나. 주제별 관광권의 설정	· 281
1) 국악문화관광	· 281
2) 역사문화관광	· 281
3) 종교관련 문화유적 관광	· 281
4) 민속문화관광	· 282
4. 문화유적 관광권의 활용	/282
제2장 전북의 민속	285
제1절 전북지역의 민속놀이와 그 특성	285
1. 민속놀이의 유형	/285
2. 지역적인 민속놀이의 특성	/291
3. 민속놀이의 계승·발전방안	/293
제2절 전북지역의 세시풍속	295
1. 세시풍속의 수용양상	/295
가. 천체의 수용	· 295
나. 자연현상 수용	· 296
다. 기(氣)의 수용	· 297
라. 역법의 수용	· 297
마. 종교수용	· 298
2. 세시풍속의 실제	/298
가. 겨울철의 세시풍속	· 298
나. 봄철의 세시풍속	· 301
다. 여름철의 세시풍속	· 302
라. 가을철의 세시풍속	· 302
3. 세시풍속의 계승·발전방안	/303
제3절 전북지역의 전통공예의 계승 및 활용	304
1. 전북지역의 전통공예의 실제	/305
2. 전통공예의 계승·발전방안	/306
제3장 전북의 판소리	309
제1절 전북 판소리의 유래와 발전	309
1. 판소리의 유래	/309
2. 판소리의 발생과 초기의 소리꾼들	/312
3. 전기 8명창시대	/313
가. 권삼득	· 314
나. 송홍록	· 315
다. 모흥갑	· 315
라. 주덕기	· 316

제2절 전북지역의 세시풍속

한국 민속문화는 세시명절권을 토대로 추석명절권과 단오명절권 그리고 추석단오복합권으로 나뉘지기도 한다. 추석명절권에서는 봄이 파종의 시기이고 가을은 수확의 시기로서 주로 쌀농사가 주가 되는 지역이다. 한강 이남 서부 평야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와 반대로 단오명절권에서는 가을이 파종의 시기라고 한다면 봄은 수확의 시기로서 주로 보리를 중심으로 한 밭농사가 주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강 이북 산간지대가 해당된다. 그리고 추석과 단오의 복합권은 한강 이남, 특히 낙동강 유역으로서 밭농사와 쌀농사가 복합된 곳이다. 전북지역은 이 중 추석명절권에 해당하며, 전북의 세시풍속을 이해하기 위해 거기에 수용된 문화현상과 세시풍속의 실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세시풍속의 수용양상

세시풍속은 한 해를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관습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의례적으로 거행되는 생활양식이다. 세시풍속을 다른 말로 연중행사라고도 부르듯이 한 해 동안 행해지는 민속신앙과 조상숭배 등의 종교 주술적인 행위와 각종 놀이와 관습이 어우러진다.

세시풍속의 세(歲)는 한 해를, 시(時)는 사계절을 뜻하는 1년 4계절의 행사로서 무시(無時: 일상시)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지닌 특별한 날의 풍속이다. 여기서 세시풍속은 단순한 시간의 변화를 역동적이고 의미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뒤바꾸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역사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 아래 적응, 수용, 소멸, 계승 등의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공감을 얻은 것만이 생활 속에 정착된다. 세시풍속의 수용양상으로 천체(天體), 자연현상, 역법, 기(氣), 종교 등이 있다.

가. 천체의 수용

우리의 세시풍속은 주로 태음력을 사용함에 따라 「달」을 기준으로 삼은 여러 행사가 있다. 정월 대보름과 팔월 추석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달의 민속은 만월주기의 구조

를 보여주며, 전통적인 농경의 관념과 연결된다. 달은 물과 여성, 대지와와 상호 음성적인 원리를 지닌 풍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달의 소멸과 증장, 물의 생생력, 여성과 대지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농경과 연관시켜 풍요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정월 보름날의 행위는 풍요관을 이입하여 주술적으로 기원하는 예축제의적인 의미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팔월 추석의 만월과 관계된 풍속은 결실의 풍요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정월 대보름의 달은 농가에서 풍흉을 점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세시풍속에는 「별」에 대한 관념이 수용되어 있다. 세시풍속에서는 태양이 별로 인식되지 않음에 비해 별자리는 쯤생이날과 칠석날 등으로 나타난다. 쯤생이날은 쯤생날 또는 쯤성날로도 불리는데, 《동국세시기》의 삼성(參星)보기와 같은 것이다. 음력 2월 6일 저녁에 점을 치는 쯤생이는 농촌에서 풍흉점으로 활용하는데, 삼성이 달 앞에서 고삐를 끌듯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풍년의 징조로 본다. 다시 말하면 초승달은 어머니가 이고 가는 밭합지로 보고, 쯤생이는 어린아이로 보아 어린아이들이 가까이서 따라가면 배가 고파서 그런다 하여 그 해는 흉년이 들고, 적당하게 떨어져 있으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이것은 달과 별을 의인화한 것이다. 쯤생이는 28별자리 가운데 묘성(昴星)의 속명으로 쯤은 종다래끼의 종과 같이 작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작고 오밀조밀한 별들의 무리이다.

칠석날에는 칠석제를 지내는데, 《시경》에도 견우직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가에서는 칠석날에 비가 오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풍년이 든다고 믿고, 낮에 비가 오면 만남의 기쁜 눈물, 저녁에 비가 오면 이별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사찰에서는 칠성제를 무속에서는 이 날을 수명장수를 비는 날로 삼아 제사를 올린다.

나. 자연현상 수용

세시풍속에는 하늘과 땅의 대응에 따라 생성된 천둥·바람·비·눈·어둠·새벽 등과 같은 자연현상도 수용되어 있다. 가령 2월 초하루에 내려오는 영등할머니를 풍신(風神)이라고 믿는 것이 그 예이다. 주로 아낙네들이 간단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초하룻날에 비가 오면 영등할머니가 며느리 영등을 데리고 왔다 하여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딸 영등을 데리고 왔다 하여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친다. 또한 어둠의 인식이 세시풍속에 반영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동지와 선달 그믐날의 풍속이다. 어둠은 단순한 공포감이나 불편함을 떠나 등불을 밝혀 새로운 밝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음양의 상극을 이용한 것이다. 그믐날의 수세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습속이다. 밝아오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동지는 하지부터 계속 짧아진 낮이 극점에 이른 시기로 이 때부터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므로 태양의 부활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

날을 작은 설이라 불렀고, 팔죽을 먹으면 나이를 더 먹는 것으로 여겼다. 동지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상징인 밤에서 재생의 상징인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른 주기성을 인식한 명절로 파악된다.

다. 기(氣)의 수용

세시풍속은 천체의 운행에 따른 사람들의 대응관계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기가 교류되고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대체로 전통적인 기 개념은 우주론의 형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주자는 “천지간에 기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의 지대한 영향력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다. 기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의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물을 생성시키고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생명의 근원으로서 자연계 만물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소멸도 기의 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세시풍속은 하늘의 기를 받아들인 땅의 현상으로, 인간이 이를 계절의 순행과 변화로 받아들인 것이라 하겠다. 즉 하늘의 기가 움직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하여 이를 체계화한 것이 율령이라고 보는 것이다. 1년 중 기의 움직임은 네 계절인 춘하추동의 리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네 계절과 열두 달 기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것이 월령 또는 시령이다. 따라서 1년 열두 달의 주기는 음양의 두 기가 교체되는 것이며, 만물도 이러한 기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하고 변화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기를 의식한 사람들은 기에 따라 택일을 하거나 생기를 맞추어 제사나 각종 의례를 거행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를 초래한다고 믿는 것 또한 기의 움직임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가령 음력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3월 3일, 9월 9일 등의 날짜를 가려서 마을제사일로 삼는 것 또한 천체운행 주기에 따른 것이다. 제관들이 부정 타지 말라고 천기에 자신의 생기를 맞춘다는 원리도 사실상 기의 흐름을 수용한 세시풍속이다. 이처럼 세시풍속에서는 자연의 기를 도외시하지 않고 생활상의 기로 전환하여 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라. 역법의 수용

역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봄과 가을에 파종과 수확으로 주기를 인식했음이 자명하다. 역법은 천체의 주기적 현상, 즉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삭망을 취해 보편타당한 형태를 시간으로 단위화한 것으로 천체력과 상용력으로 구분된다. 천체력은 천체의 필연적 변화를 적은 과학력이라고 한다면, 상용력은 일반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행사를 적은 생활력과 생산력, 의례력이라 하겠다. 인간은 태양의 주기적인 위치변화를 계절의 변화와 결부하여 1년 단위를 생각해 냈을 것이고, 각 민족에 따라 달이 기울고 차는 변화를 보고 한 달 단위를 생각해 내고, 한 해보다 긴 주기로 60년을 생각했을 것이다. 하루보다

짧은 시간은 밤과 낮으로 나누고, 인위적으로 12등분 또는 24등분하고, 한 시간은 분과 초로 나누었다. 1초가 사람의 심장박동 주기와 비슷한 시간단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나라에 달력이 들어온 것은 백제에서 중국 송나라 태조 때 하승천이 제작한 원가력을 받아들인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고구려는 영류왕 4년에 당나라의 역서를, 신라는 문무왕 14년에 당나라의 인덕력을 사용하였다. 고려는 당나라 선명력과 송나라 역법을, 조선은 세종 15년에 향력을, 그 후 효종 4년에 서양의 태음력인 시헌력을 채택했다. 그리고 고종 32년에 김홍집 내각에서 서양의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마. 종교수용

종교로는 먼저 불교를 들 수 있다. 불교적인 세시풍속은 석가탄신일과 관동행사, 7월 보름날의 백중제로서 우란분제가 전한다. 12간지의 풍속도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교의 《약사여래경》에 근거한다. 《약사여래경》의 12대장이 12지신장과 통했으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도 12동물의 세시풍속 이야기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때의 세시풍속지인 《경도잡지》에는 신발을 훔쳐가는 귀신으로 야광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불교의 약왕보살의 와전으로 보여 불교와 관련된 것이다.

유교는 우리의 민간신앙에 뿌리를 내려 조상숭배를 강화시켰고, 기독교가 들어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발렌타인데이나 추수감사절 등이 세시풍속으로 차츰 정착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2. 세시풍속의 실제

가. 겨울철의 세시풍속

겨울철의 세시풍속은 11월부터 1월까지의 세시풍속을 말한다. 세시명절로는 11월의 동지, 1월의 설날과 보름의 명절을 들 수 있다.

11월의 명절은 작은 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짓날을 들 수 있다. 작은 설이라 함은 고대 역법으로 동지를 설로 삼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붉은 팔죽을 정초의 떡국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더 먹는 상징으로 삼았다. 이 날에는 찹쌀로 만든 새알을 넣어 팔죽을 쑀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 집 주변에 뿌린다. 요즘은 집 주변에 팔죽을 뿌리는 풍습은 사라졌다고 해도 팔죽을 쑀어 먹는 풍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달 그믐날은 온 집안 곳곳에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설날을 맞이한다. 또한 수세(守歲)라 해서 이 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윤달은 계절과 음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한 달로서 탈이 없는 달이다. 윤달에 「진송장」을 거꾸로 세워 놓아도 탈이 없을 만큼 좋은 달이라 믿고 있다. 그래서 이 달에 선영들의 유해를 이장하거나 혹은 묘역을 손질하기도 하고, 집이나 부엌 수리를 많이 한다고 한다. 다만 윤달에는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원단(元旦) 또는 원일(元日)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삼가고 조심하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이다.

설날에는 「설빔」이라고 하여 새옷을 갈아입는다. 아동들이 입는 옷은 까치옷이라 하고, 성인들은 주로 한복을 입는다. 이 옷들은 모두 설 전에 미리 준비해 둔 새옷이다. 설빔을 한 뒤 사당에 음식을 진설하거나 혹은 사당이 없는 경우는 안방 옷목에 차렷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정조차례」 또는 「차례」라고 한다. 차렷상에는 떡국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완주 일대에서도 떡국과 메(밥)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나, 메를 더 많이 올리고 있다. 떡국에는 꿩고기를 넣어야 하나, 꿩 대신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기도 한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직계가족들에게 「세배」를 올린다. 세배가 끝나면 성묘를 가고, 오후부터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한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반드시 덕담을 해 준다. 그런데 장수지역에서는 세배가 모두 끝난 다음에 성묘를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 뒤 마을 어른들에게 세배를 초삼일까지 다니고, 성묘를 초사일에 가는 것이다.

설날 아침에 「복조리」를 사서 걸어 두는 풍습도 있다. 이는 복조리로 쌀을 일 때 일어나는 쌀처럼 복이 솟아나라는 의미에서 행해진다. 또한 설날에 완주지역에서는 동네 남녀가 모여서 풍물을 치는데, 이는 「매굿」이라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잡귀를 쫓아내 준다고 한다. 이때 집주인은 술과 음식을 내놓기도 한다.

정초에 벽에다 닭이나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재앙이 물러나기를 기원하기도 하는데, 9년 만에 한 번 삼재(三災)가 드는 해를 당한 사람은 세 마리의 매를 문 위 벽에 붙이고 액을 막기도 한다.

보름에는 찰밥을 해서 차렷상을 차려 조상에게 바치기도 하지만, 동네 아낙네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찰밥을 얻어다 먹기도 한다. 보름음식으로 주로 무우나물이나 무우지짐 그리고 무우탕, 콩나물과 두부지짐 등 냄새(나물)와 찰밥을 들 수 있다. 또한 보름에는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부럼깨기」를 하기도 하고, 귀가 밝아지라는 뜻에서 「귀밝이술」을 마시기도 하며, 더위 먹지 말라는 「더위팔기」도 한다.

보름에 행해지는 여자 중심의 세시풍속은 디딜방아세우기, 동토맥이, 사내기짓기, 대튀기, 도래기, 제웅치기,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복토흙치기 등을 들 수 있다. 「디딜방아세우기」는 여자들이 이웃마을에서 디딜방아를 훔쳐다가 동네 입구에 거꾸로 세우고, 여자의 속옷을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디딜방아세우기는 해방 후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동토맥

이」는 찰밥을 하기 위해서 담귀 둔 찰쌀의 뜨물을 동이에 받아 마당에서 “하자맥이 하자 하자맥이 하자” 하면서 그 물을 마당 구석구석에 뿌린다. 또한 「사내기짓기」는 찰밥을 할 무렵에 대나무에 새끼를 매달아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사내기 짓자 사내기 짓자” 하면서 마당을 돌아다닌다. 「대튀기」는 마당을 청소한 뒤에 그 쓰레기를 마당 한가운데에 모아 놓고 대나무를 넣어 불을 피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행해진다. 또한 「도래기」는 동네 여자들이 쌀을 거두어 떡을 똑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먹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제웅치기」는 어머니가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돈이나 쌀을 넣어서 사거리나 개천에 내다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웅치기는 주로 남자는 제웅직성이, 여자는 목직성이 든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다.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는 밭에 있는 감나무나 밤나무 등 과실나무가 있는 경우에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올려 놓으면 과일나무가 시집 간 것이 되어 그 해 많은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행해진다. 「복토흙치기」는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의 뜰이나 마당의 흙을 몰래 조금 가져와 토방이나 부뚜막에 바르면 부잣집의 재물이나 복이 가난한 집으로 전해져 잘 살게 된다고 해서 행해진다.

남자 중심의 세시풍속은 당산제, 햇불싸움 등이 있다. 「당산제」는 대개 남자 중심의 제관들이 제사를 지내나, 완주 일대에서는 단골과 여성 중심의 제관이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남자들은 망우리나 달집태우기가 끝나면, 쥐불놀이를 하는데 그것이 햇불싸움으로 확산되어 격렬한 불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불싸움을 할 때는 짚으로 만든 둥근 짚동치에 불을 붙여서 상대방에게 돌려서 던지기도 한다. 어린이들의 햇불싸움이 나중에는 어른들의 싸움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남녀가 함께하는 세시풍속은 망우리나 달집태우기, 줄다리기와 줄감기, 유지지세우기, 다리밟기 등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망우리」라 하여 뒷산에서 달맞이를 하기도 하고, 달집을 지어서 「달집태우기」를 하기도 한다. 망ურ이는 주로 전북 서부지역에서, 달집태우기는 주로 동부지역에서 많이 한다. 망우리를 하면서 달의 형체를 보고 농사점을 치기도 하는데, 달무리가 흐리면 가물겠다고 생각하고 달무리가 깨끗하면 물이 많아 풍년이 들 것으로 점을 치기도 한다. 「줄다리기」는 주로 전북의 동부지역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음력 1월 15일에 이루어진다. 줄은 낮에 가가호호에서 가지고 나온 짚으로 외줄이나 쌍줄을 만들었다가 사용한다. 편은 윗편과 아랫편으로, 남자와 여자로, 동편과 서편 등으로 가르고, 아랫편이나 여자를 상징하는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을 가지고 있다. 줄다리기 후 줄은 불사르거나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소에게 먹이기도 한다. 「줄감기」의 방법은 줄다리기와 거의 같으나 쌍줄을 사용하고, 줄다리기 후 줄을 당산나무라든가 입석 혹은 짐대에 감아 둔다. 이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일종의 용신(龍神)을 모시는 행위이다. 주로 전북의 김제, 정읍 부안 등 서부지역에서 많이 행해진다. 「유지지세우기」는 날가릿대 혹은 벚가릿대라고도 부른다. 유지지세우기는 대나무 끝에 짚으로 초가지붕 모양을 만들어 안방 처마 끝에 세워 두는 것을 말한다. 유지지에 창호지를 주렁주렁 매달기도 하고, 그 곳에 팔랑개비를 꽂기도 한다. 보름에 만들어 세운 뒤 2월 1일까지 세워 둔다. 유지

지를 세우고 찰밥을 차려 놓기도 한다. 「다리밟기」는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그 한 해 동안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고 하여 열두 다리를 밟는다.

나. 봄철의 세시풍속

봄철은 2월에서 4월까지를 말하는데, 주로 파종의례가 중심이다. 2월의 대표적인 세시명절은 초하루와 3월의 삼짇날, 4월의 초파일이다.

2월 1일은 「하룻날」 혹은 「노네기날」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노네기날」이라 부르고 있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콩을 볶아 먹기 때문에 「콩볶아 먹는 날」이라고도 한다. 콩을 볶을 때에는 콩만 볶는 것이 아니라 메밀 등의 잡곡과 여물을 섞어서 볶기도 한다. 이때 “노네기 볶자 노네기 볶자” 혹은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라는 주문을 외면서 볶는다고 한다. 콩을 볶아서 집 주변이나 논밭에 뿌리기도 한다. 또한 2월 1일은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는 날로 영등할머니는 20일에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 초하루에 바람이 불면 수선스러운 할머니 혹은 딸 영등과 함께 내려왔다 하여 한 해 동안 바람이 많겠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면 점잖은 할머니 혹은 며느리 영등과 함께 오셨다고 생각하여 올해에는 물이 많아 농사가 풍년 들겠다고 점을 치기도 한다. 초순경에 영등할머니를 부엌에 모시고 참기름불을 밝힌 뒤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소지하면서 기원하는 「바람올리기」 혹은 「영등제」라고 하여 주부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정월 보름에 유지지(난가릿대)를 세웠던 농가에서는 이 날에 유지지에 꽃아 두었던 벼 낱알을 쫓아서 송편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주기도 하고, 유지를 불사른다.

2월 6일에는 「좀생이날」이라 하여 좀생이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한다. 이것은 묘성과 달의 거리를 이용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좀생이 별은 아주 작고 오밀조밀한 별들로서 달을 중심으로 달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많이 떨어져 가기도 한다. 여기서 달을 부모로, 별들을 어린아이로 의인화하여, 별들이 달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이들이 배가 고부모로, 별들을 어린아이로 의인화하여, 별들이 달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프지 않아 앞서가는 것이고, 별들이 달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부모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달과 별들이 같이 가는 것은 아이들이 세상 이 두려워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 별자리와 달자리의 거리를 보고 농사점을 쳤는데 예전대 별들이 달보다 앞서가는 것을 길조로 보았다.

2월에는 결혼을 하면 영등할머니가 질투를 하여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신부가 바람이 난다고 하여 결혼을 삼가하는 금기도 들어 있다.

3월의 명절은 3일인 삼짇날을 들 수 있다. 대개 이 날은 「삼짇날」 혹은 완주지역에서는 「용왕간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삼짇날에는 화전(花煎)을 붙여 먹기도 하고, 풀로 신랑과 신부를 만들어 「풀각씨놀이」를 하기도 한다. 또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이 흐르듯 신부를 만들어 「풀각씨놀이」를 하기도 한다. 또한 머리를 많이 감기도 한다. 「용왕간다」의 의례이 소담하고 윤택이 난다고 하여 여자들은 머리를 많이 감기도 한다. 「용왕간다」의 의례는 부녀자들이 각 가정에서 너물과 밥 그리고 미역국과 떡 등을 해서 방죽 제방에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4월 8일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불을 켜는 연등 풍습이 있다. 연등은 원래부터 4월 초파일에 했던 것은 아니다. 신라시대에는 정월 보름에 연등을 하다가, 고려 현종대에 이월 보름에 행하게 되고, 다시 고려 중엽인 고종대에 사월 초파일에 행하여 정착된 것이다. 초파일에 농가에서는 별다른 민속은 없으나 불자(佛者)들은 사찰에 가서 연등을 하기도 하고 탑돌이도 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대개 일손을 멈추고 하루를 쉬는 정도이다.

다. 여름철의 세시풍속

여름철의 세시풍속은 5월에서 7월까지로 주로 파종 후 성장의례가 중심이 된다. 오월의 세시명절로 단오, 유월은 유두, 칠월은 백중날을 들 수 있다.

5월 5일 단오날에는 양기(陽氣)가 충만한 날이어서 젊은이의 명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리취의 연한 잎을 넣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해 「수릿날」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전주의 덕진에 가서 물을 맞거나,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 덕진에서 목욕을 하기도 한다. 또한 머리의 윤기를 내기 위해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한다. 또한 여자들은 그 네타기를 하기도 한다.

6월 15일 유두에는 농가에서 「농신제」 혹은 「용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농신제는 부녀자들이 각 가정에서 찰떡이나 밀개떡을 해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논에 가서 논두렁이나 물꼬 밑에서 물이 새지 않고 농사가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날은 참외와 수박 등을 따서 국수와 떡을 만들어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 하여 조상에 차례를 올리기도 한다.

7월의 민속으로는 7일 칠석날과 15일 백중을 들 수 있다. 칠석날에는 별다른 민속이 없고, 백중날에는 일손을 놓고 그 동안 등한시켰던 마을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샘물을 퍼내고 청소를 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술멕이」를 많이 한다. 따라서 백중날을 술멕이날이라고도 한다. 술멕이는 술을 추렴하거나 혹은 농사가 많은 집에서 술을 내놓아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는 민속이다. 이 즈음은 농가의 농삿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확만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여, 그 동안 논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도와 준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날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머슴이 힘든 농삿일을 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극진히 대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자들은 씨름을 많이 했다고도 한다.

라. 가을철의 세시풍속

가을의 세시풍속은 수확의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세시풍속은 팔월 추석, 구월 중구날을 들 수 있다.

8월 추석은 쌀농사 지역에서는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는 날이자 「올기심리」를 하여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는 날이다. 이 때는 각 가정에서 햅쌀이 나오는 시기라 송편과 함께 햅쌀로 밥을 지어 조상들에게 감사제의를 올린다. 이 날 부녀자들은 널뛰기나 강강술래를 하기도 했다.

9월의 명절로는 9일의 중구를 들 수 있는데, 이 날에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국화주를 빚기도 한다. 특히 추석에 철이 늦어 올기심리를 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올기심리를 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선산을 손질하거나 시제를 많이 모신다. 시제는 날씨가 좋은 경우는 산소에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는 경우는 제실에서 지낸다. 4대조까지는 기제사로 모시지만, 5대조 이상은 시제를 통해서 모시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시제도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것은 농촌에 고령자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시제의 참여계층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3. 세시풍속의 계승·발전방안

세시풍속은 인간이 농경생활의 리듬과 1년의 시간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연중행사이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는 농경생활의 리듬보다 산업사회의 리듬을 중시하고, 일주일 혹은 공휴일 중심의 시간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생활을 토대로 형성된 세시풍속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약화 혹은 단절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설과 추석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나마 그 세시풍속은 명맥이라도 이어 가고 있다. 그런데 세시풍속은 정월에 행해지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대보름을 전후해서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세시풍속을, 즉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월 보름은 공휴일 혹은 지역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시군별로 축제가 행해지고 있다. 풍남제나 춘향제, 군민의 날, 백일장, 음악제, 연극제 등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들 대부분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축제의 시기를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제 시기를 정할 때 관보다는 민이 주체가 되도록 가능한 세시명절의 시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시풍속의 의미도 되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표인주 : 전북대학교 강사)